

조선시대 충절과 선비정신의 발현

임선빈(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전문위원)

찬란한 백제문화가 꽃피었던 충청 지역이 조선시대에 이르면 선비문화의 중심지로 부각된다. 충청도는 흔히 ‘양반의 고장’, ‘선비의 고장’, ‘충절의 고장’ 이라고 일컬어져 왔는데, 이는 일찍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양반, 선비, 충신·열사가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선비는 한자어가 아닌 순수한 우리말이다. 따라서 ‘선비’ 라는 어휘의 용례에 대해서 훈민정음 창제 이전으로 소급하여 알아보기는 어렵다. 선비가 언제부터 사용되던 용어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훈민정음이 창제된 직후인 조선초기의 기록에서는 선비의 고어가 ‘선비’ 로 유사(儒士)·유생(儒生)을 뜻하였다. 이 선비는 시대에 따라 그 개념이 변해왔는데, 조선초기에는 고려 이후 유학을 공부하여 문한(文翰)을 전업으로 하는 문사를 지칭한 것으로, 유학을 공부하여 관리가 되려는 사람이나 관리가 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즉 유자(儒者)의 의미가 강하였다. 최세진의 『훈몽자회』(1527)에서도 ‘儒’ 가 ‘선비 유’ 로 풀이되어 있고, 그 뜻은 ‘도덕을 지키고 학문을 힘쓰는 사람’ 으로 설명되어 있다. 반면에 조선전기의 ‘士’ 는 유학과 관련된 경우에만 선비로 풀이되고, 사(士)의 일반적 개념은 조사(朝士), 즉 벼슬아치였다. 그러나 조선중기에 이르면 ‘士’ 가 선비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사(士)가 조사(朝士)에서 유학지사(儒學之士)의 개념으로 확대된 것은 16세기 이후의 조정이 성리학을 수학한 사림(士林)들의 무대가 된 역사적 맥락과 관련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선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벼슬하지 못한 이들이 선비의 대중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讀書曰士(독서왈사)’ 라고 하여 사(士)의 훈인 선비도 관직에 관계없이 유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다. 조선말기의 선비상은 벼슬하지 못한 자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벼슬하지 못한 선비가 증가함에 따라 ‘士’ 의 본래적 의미, 즉 벼슬로서의 의미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교 교양인을 관료로 선출하던 전통시대의 인재등용 시험인 과거제도가 폐지되고(1894년), 근대 교육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나

아가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자, 더 이상 선비는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일제시대에 식민지 관료는 현실과 타협하면서 신학문을 공부해야만 될 수 있었다. 반면에 참된 선비는 식민지 관료가 되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여 벼슬과는 관련이 없는 순수한 의미의 포의(布衣)로 남게 되었다. 이제 선비는 ‘학식이 있되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오늘날 일부 국어사 전에서는 선비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우리가 선비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은 이와 같은 선비의 말기적 모습에 기인하는 것이다.

오히려 조선시대 대부분의 선비들은 같은 시기 세계 다른 지역의 지배층에 비해 건강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가 흔히 조선 선비에 대하여 갖고 있는 꼬장꼬장하고 깐깐하다거나 꿈생원같다는 표현은 조선말 망국대부(亡國大夫)가 된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기방어적으로 편향된 지식인상에 불과하다. 사림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의 선비들은 오히려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지닌 인물이라 보수 세력의 강한 견제를 받기도 하였다.

선비문화의 전성기는 조선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 충청도는 선비문화의 중심지였다. 일찍이 여말선초 성리학이 수용되던 시기에 충남 출신 학자들은 성리학 수용과 연구에 앞장섰으니, 보령 남포의 이재 백이정(白頤正, 1247~1323)과 서천 한산의 가정 이곡(李穀, 1298~1351)·목은 이색(李穡, 1328~1396) 부자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석탄 이존오(李存吾, 1341~1371)는 말년에 공주 석탄(현재의 부여 저석리)에 은거했으며, 야은 길재(吉再, 1353~1419)는 전라도 금주(錦州, 지금의 충남 금산)와 인연이 있다.

선초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이개(李塏, 1417~1456)는 이색의 증손자요, 성삼문(成三問, 1418~1456, 홍주)과 박팽년(朴彭年, 1417~1456, 연기·회덕)도 충남과 연고가 있으며, 생육신인 매월당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부여 홍산 무량사에 부도와 영정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 한 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있었던 문무를 겸비한 진정한 선비 절재 김종서(金宗瑞, 1383~1453)도 공주(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출신이었다.

한국의 유교는 16세기에 이르면 ‘조선적 성리학’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독자성을 지니고 발달하였는데, 특히 16세기 기호유학은 화담계열(花潭系列)이 중심이었다. 화담 서경덕(徐敬德)은 무인 집안 출신으로, 제자를

받아들일 때 문호를 개방하여 양반뿐 아니라 양인·천인에게까지 문하에 출입하게 했다. 이중 충남의 내포지방에 살던 인물로 이지함·서기·홍가신 등이 있다. 『토정비결』의 작자로 널리 알려진 토정 이지함(李之函, 1517~1578)은 한산이씨로 보령사람이며, 묘소는 보령시 주포면 고정리에 있고 아산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고청 서기(徐起, 1523~1591)는 천인으로서 서자인 이중호(李仲虎)의 문인으로 화담문하에 출입했다. 고청 서기는 공주의 공암에 충남 최초의 서원을 건립한 인물로, 원래 홍주의 상전리에서 태어나 40대까지 홍주에서 살았으나, 만년에 20여년간 계룡산 자락 고청봉 아래에서 후학을 양성하다가 그곳에 문힘으로써 ‘계룡산문화권[금강문화권]’에 성리학적 학풍을 배태시킨 인물로 이해된다. 아산의 향현으로 홍주 목사를 지낸바 있는 홍가신(洪可臣, 1541~1615)은 화담 서경덕의 제자인 민순(閔純, 1519~1591)의 제자이다.

한편, 16세기에 호서의 내륙지방에서도 금강 유역을 중심으로 유학자들이 활동했다. 계룡산의 처사 박증(朴增, 1461~1517, 노성), 후기 사림파 김정(1486~1520, 보은·회덕), 기묘명현록에 올라있는 이자(李耜, 1466~1524, 한산), 김안로를 탄핵했던 송인수(宋麟壽, 1499~1547, 청주·회덕), 유성과 연고가 있는 박순(朴淳, 1523~1589) 등이 금강유역의 대표적 인물이다.